

Kstat Report

사회지표 || 2023년 4월 20일

케이스탯 2023년 4월 사회지표

■ 월 정기 지표

- _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 '잘못된 방향' 66%, 소폭 상승
- _ 경제 방향성 : '잘못된 방향' 73%, 횡보
- _ 정부 신뢰도 : '신뢰' 29%, 소폭 상승
- _ 정부 정책 만족도 : '만족' 24%, 횡보
- _ 정당 호감도 : 호감 정당 '있다' 30%, 5%p 상승
- _ 다음 달 물가 전망 : '오를 것' 62%, 소폭 하락
- _ 부동산 가격 전망 : '오를 것' 27%, 소폭 상승
- _ 주식 가격 전망 : '오를 것' 23%, 소폭 하락
- _ 자기 삶 평가 : '고군분투' 65%, '고통' 23%, '번창' 12%

■ 4월 특별지표 : 우리 사회 공정성 평가

- _ 사회 공정성 평가 : 우리 사회, '불공정하다' 83%
- _ 개인 공정성 평가 : 능력 '알맞게' 48% vs '낮게' 50%
- _ 사회적 약자 대우 평가 : '차별한다' 71%
- _ 사회적 약자 지원 : '동의' 65% vs '비동의' 35%

조사개요

조사기간	2023년 4월 7일(금) ~ 4월 9일(일)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웹 조사
조사기관	케이스탯
표본추출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 할당 추출
표본틀	케이스탯 K-패널
유효표본	총 1,090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 $\pm 2.97\%$
가중치	지역별, 성별, 연령별 셀 가중 부여 (2023년 3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

일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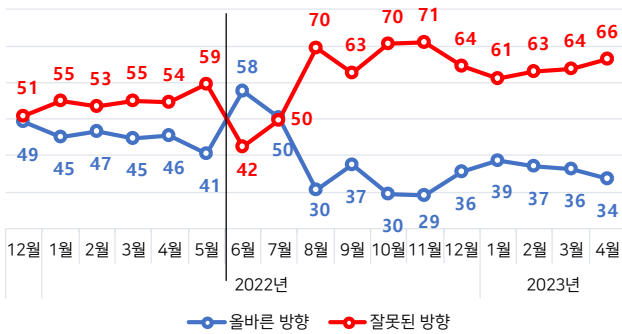
- _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세부항목의 합이 100%가 되지 않거나 넘을 수 있습니다.
- _ 중복 응답 문항의 경우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_ 본 리포트에서 n은 유효 표본크기를 의미합니다.
- _ 응답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4월 정기 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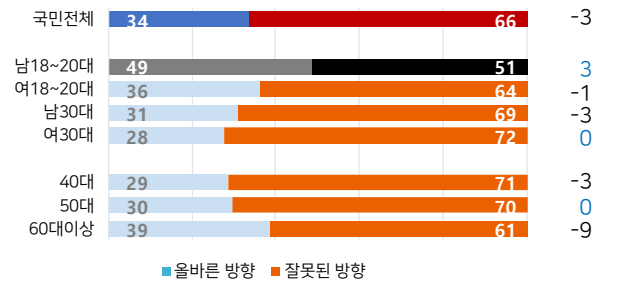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 '잘못된 방향' 66%, 소폭 상승

-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이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이 소폭 상승하며, 3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임
 - 2023년 4월 조사 결과, '올바른 방향' 34% vs '잘못된 방향' 66%로 조사됨
- 계층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계층에서 부정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여자 30대 △40대 △호남 △중도층, 진보층 △자영업자 등에서 높았음
- '올바른 방향' 응답이 우세한 계층은 △보수층뿐인 가운데, △60대 이상 △서울, 충청, TK △사회이의 중시층 등에서도 상대적으로 긍정평가가 높았음
 - △남자 18~20대 △학생 등은 긍·부정 응답이 각각 50%대로 비슷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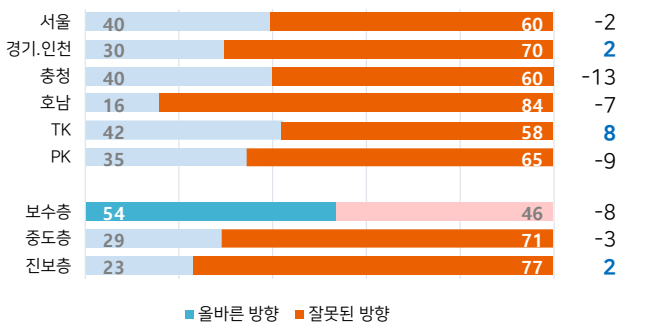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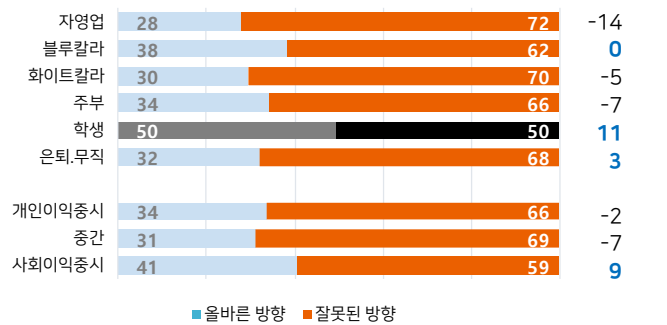
2023년 4월 대한민국 전반적 방향성 평가 : 국민전체,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3.04.09.조사,단위:%)



4월 대한민국 방향성 평가 : 지역별,이념별 (단위:%)



4월 대한민국 방향성 평가 : 직업별,이직중시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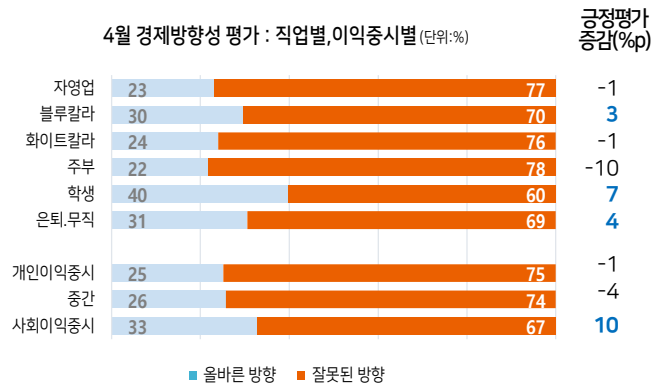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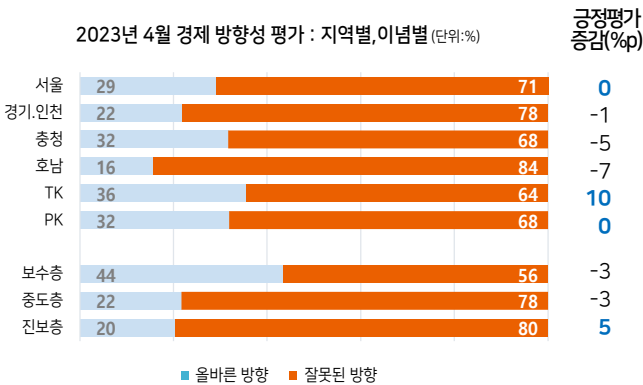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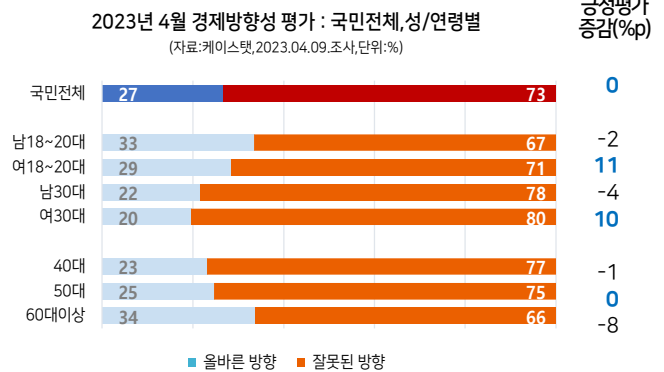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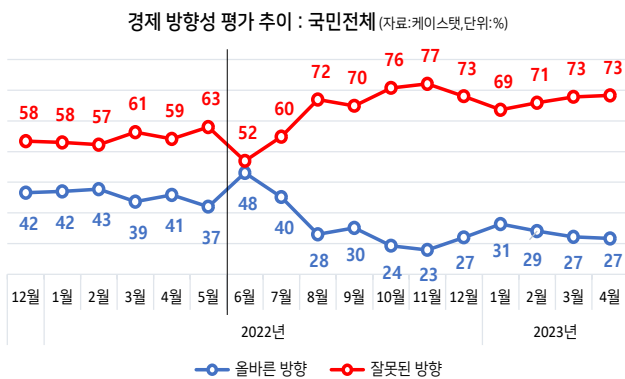


Kstat Point

- ☑ 대한민국 방향성에 대한 긍정평가가 올 1월 이후 지속 하락하며, 긍정 여론이 줄어들음
 - : 올 초 30% 중후반 수준을 기록하던 대통령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도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임
 - : (NBS)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평가 추이 : 1월 2주 37%, 2월 3주 36%, 3월 3주 35%, 4월 2주 34%
 - : (갤럽)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 추이 : 1월 1주 37%, 2월 3주 35%, 3월 3주 33%, 4월 2주 27%
- ☑ 최근 '저자세'라는 비판을 받는 정부의 대일·대미 외교를 둘러싼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 한일정상회담 이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더해 한미 정상회담 직전 불거진 미국의 도·감 청 의혹 사건 발생 등이 정국의 이슈로 떠오르며, 정부의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음

□ 경제 방향성 : '잘못된 방향' 73%, 홍보

- 대한민국 경제 방향성에 대해, '올바른 방향' 27%, '잘못된 방향' 응답 73%를 기록하며 지난 3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함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잘못된 방향'이 우세하며, 특히 우세한 계층은 △남자 30대 △여자 30대 △경기·인천, 호남 △중도층, 진보층 등임
- '올바른 방향' 응답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계층은 △남자 18~20대 △60대 이상 △충청, TK, PK △보수층 △학생 △사회이익중시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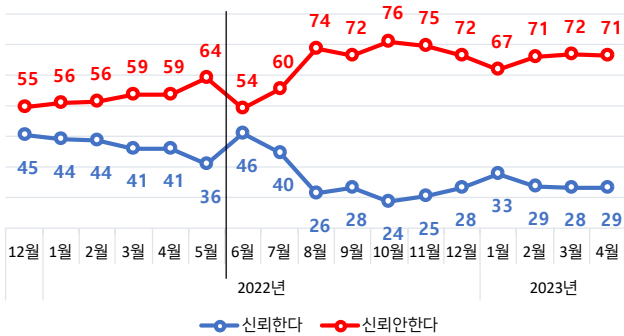
Kstat Point

- ☑ 우리나라 경제 방향성이 '잘못된 방향'이라는 응답이 작년 8월 이후 줄곧 70%선에 머물러 있는바, 경제불안감이 국민들 사이에 지배적인 정서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임
- ☑ 최근 국제금융기구가 발표한 올해의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살펴보면, 경제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좀처럼 낮아지기 힘든 상황인 것으로 판단됨
 - 4일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올해 한국이 1.5%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는 홍콩(3.6%), 몽골(5.4%), 중국(5.0%), 대만(2.0%) 등 동아시아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였음
 - 11일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7%에서 1.5%로 하향 조정했으며, G20 국가 중 성장률 전망치가 4번 연속(작년 7월·10월, 올해 1월·4월) 하락한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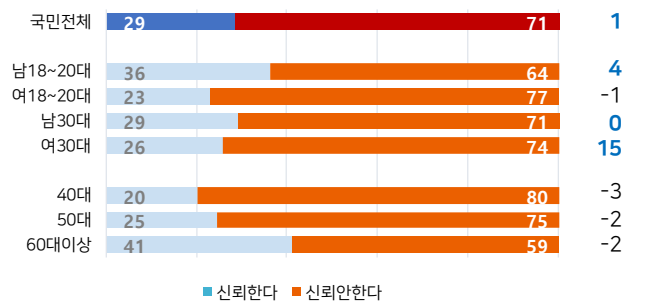
□ 정부 신뢰도 : '신뢰' 29%, 소폭 상승

- 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소폭 상승하며, 최근 3개월 연속 30%대를 하회하고 있음
 - 4월 조사 결과, 정부를 '신뢰한다' 29% vs '신뢰하지 않는다' 71%
- 계층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계층에서 부정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여자 18~20대 △40대 △호남 △중도층, 진보층 △자영업자 등에서 두드러짐
- '신뢰한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 18~20대 △60대 이상 △TK △은퇴·무직자 △사회이익증시층 등이었음
 - △보수층은 긍·부정 응답이 각각 51%, 49%로 비등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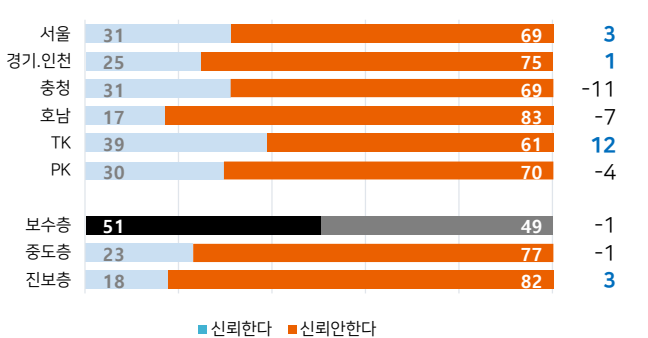
정부 신뢰도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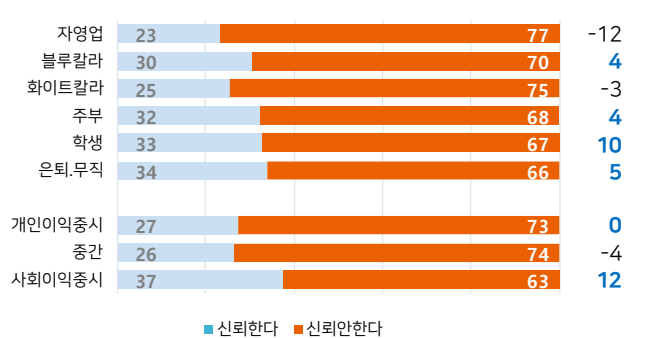
2023년 4월 정부신뢰도 평가 : 국민전체,성/연령별 (자료:케이스탯,2023.04.09.조사,단위:%)



2023년 4월 정부신뢰도 평가 : 지역별,이념별 (단위:%)



4월 정부신뢰도 평가 : 직업별,이익증시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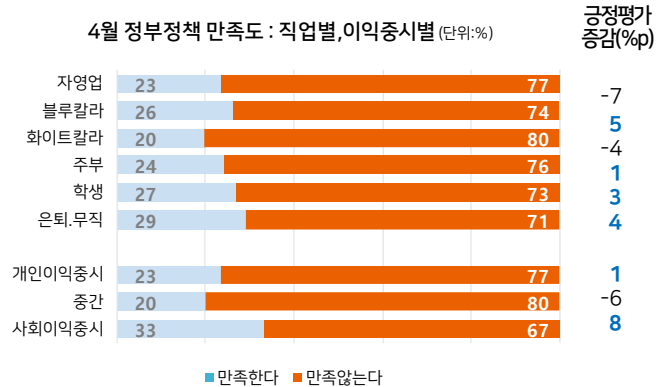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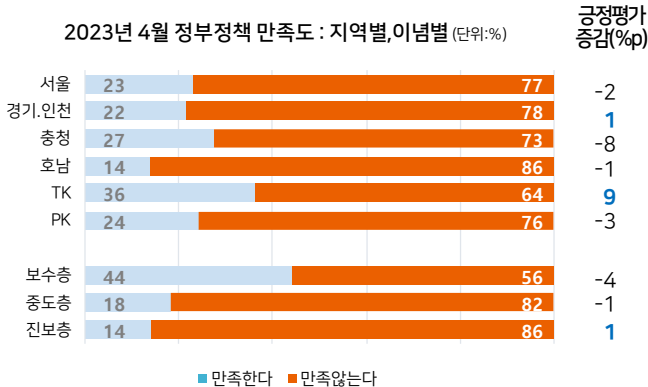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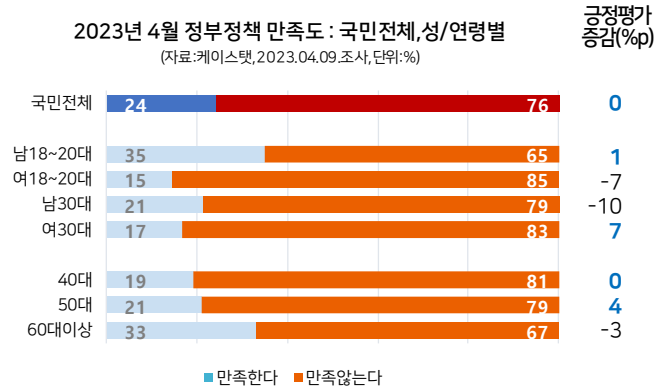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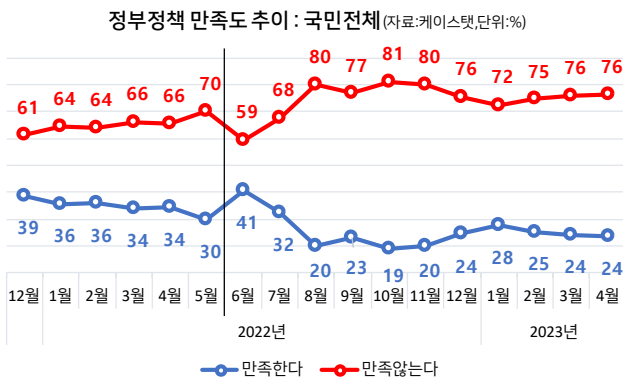


Kstat Point

- ☑ 국민 10명 중 2~3명은 정부를 신뢰하지 않고 있음
 - : 거의 모든 계층에서 정부를 '신뢰한다'는 응답이 30%대 이하의 수준을 보임
 - : 현 정부 핵심 지지층 중 60대 이상의 고연령층과 TK조차도 '불신' 응답이 '신뢰' 응답보다 높으며, 보수층은 신뢰·불신 수준이 비등함
- ☑ 작년 하반기 정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급격히 하락했던 주요인은 불명확한 국정 비전, 인사 논란, 정책 혼선, 여당 내홍 등인데, 최근 20%대의 저조한 정부 신뢰도를 보이는 배경도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보임
 - :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 정책 혼선, 대일·대미 외교 정책에 대한 비판 등과 여당 당 지도부 인사들의 잇단 설화와 내홍 등이 최근 윤석열 정부를 둘러싼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

□ 정부 정책 만족도 : '만족' 24%, 홍보

- 정부 정책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은 지난 3월과 같은 24%를 기록하며, 9개월 연속 20%대에 머물러 있음
- 모든 계층에서 '만족 않는다'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여자 2030세대 △40대 △호남 △중도층, 진보층 △화이트칼라 △중간이직 중시층 등에서 높았음
- '만족한다'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 18~20대 △60대 이상 △TK △보수층 △사회이직 중시층 등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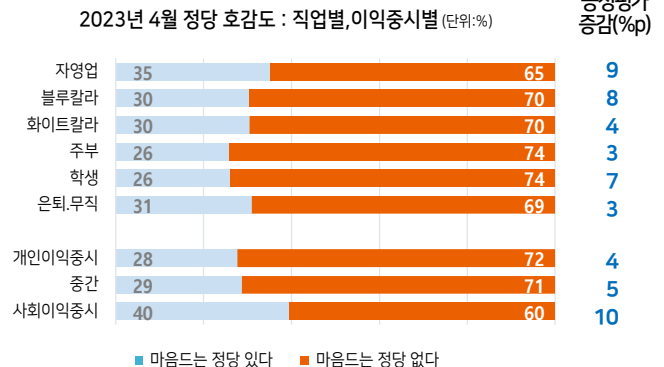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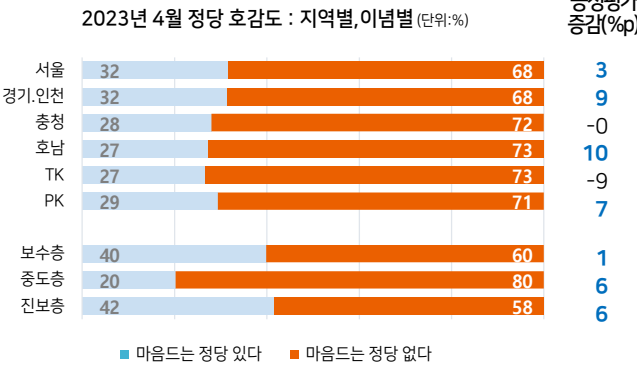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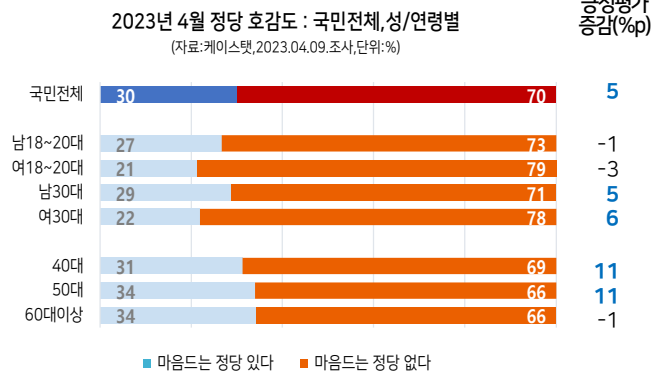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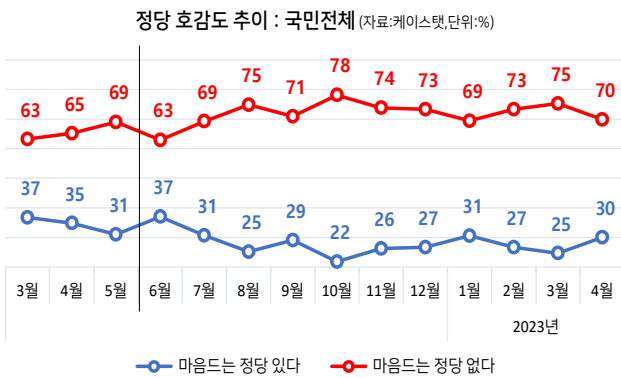


Kstat Point

- ☑ 작년 8월 20%로 급격히 내려왔던 정책 만족도가 여전히 20%선에서 고전하고 있음
- ☑ 이는 작년과 비교해 국민들의 정책 만족도가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시사하는데, 주요 분야별 정책에 대한 국민 평가 역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함
 - '22년 9월 2주와 '23년 4월 2주의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긍정평가 추이는 다음과 같음
 - '사회 안전 정책' 39%→41%, '대북 정책' 39%→40%, '부동산 정책' 37%→38%, '복지 정책' 38%→37%, '외교 정책' 37%→35%, '경제 정책' 30%→31%
 - '복지 정책'과 '외교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소폭 감소하고, 다른 분야의 정책에 대한 긍정평가는 소폭 증가하며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없었음

□ 정당 호감도 : 호감 정당 '있다' 30%, 5%p 상승

- 정당 호감도 관련, '마음에 드는 정당이 있다'는 응답이 큰 폭(5%p) 오르며, 30%를 기록함
 - 4월 조사 결과, '마음에 드는 정당 있다' 30% vs '마음에 드는 정당 없다' 70%
- 모든 계층에서 부정 응답이 높은 가운데, 특히 높은 계층은 △여자 2030세대 △중도층 △주부, 학생 등으로 나타남
- 상대적으로 긍정 응답이 높은 계층은 △60대 이상 △TK △보수층, 진보층 △사회이익 중시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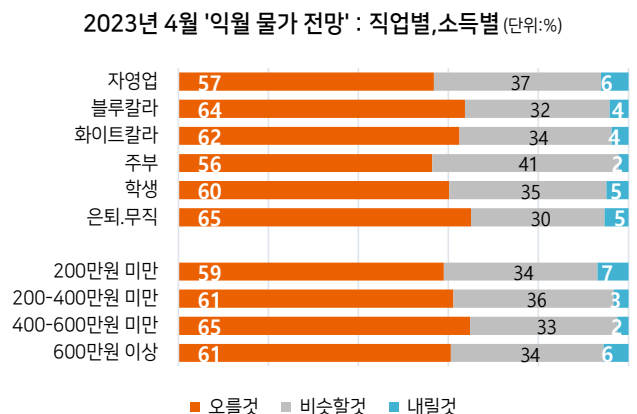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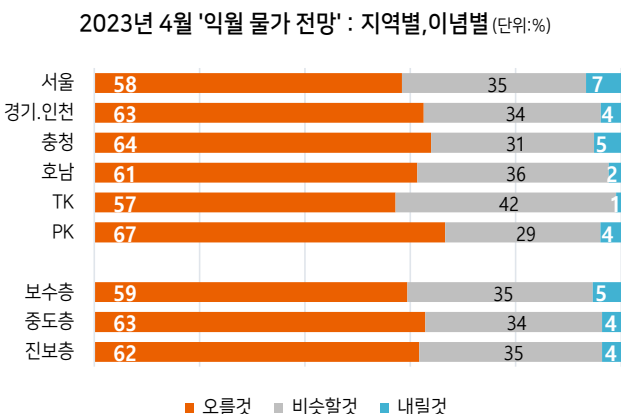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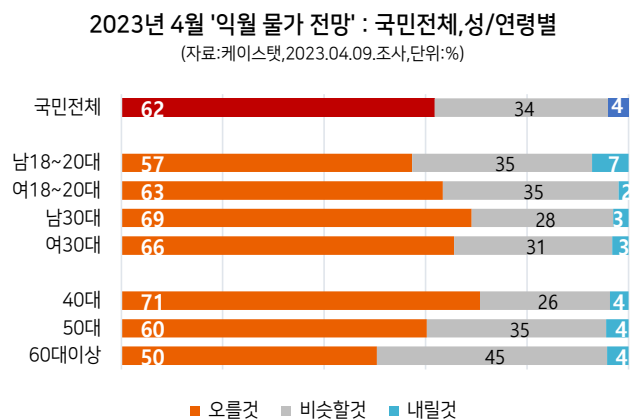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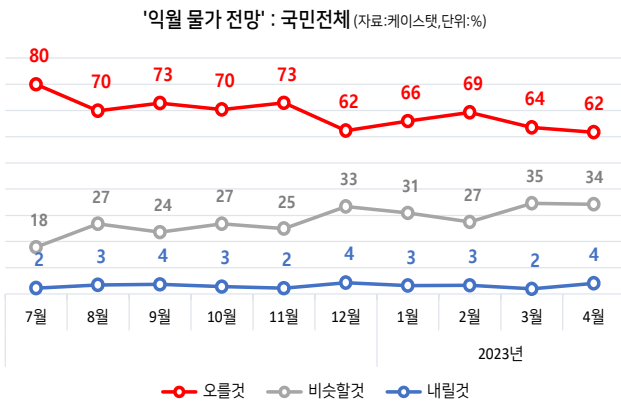


Kstat Point

- ☑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각 당의 주요 지지층의 여론이 지난달과 서로 다른 방향으로 엇갈리며, 국민의힘에 대한 호감도는 감소,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호감도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 지난 3월 '마음에 드는 정당이 있다'는 응답이 전월과 비교해 국민의힘 지지층인 TK(+10%p)와 보수층(+1%p)은 상승,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인 호남(-14%p)과 진보층(-4%p)은 하락했음
 - : 이와 달리 이달에는 TK(-9%p) 대폭 하락, 보수층(+1%p) 소폭 상승, 호남(+10%p)과 진보층(+6%p)은 큰 폭 상승함
- ☑ 지난 3월 초 김기현 체제가 시작된 후 국민의힘은 최고위원들의 잇따른 설화, 전광훈 목사 리스크 등으로 논란을 겪고 있고, 이에 더해 홍준표 대구시장의 상임고문 해촉 등으로 내부 갈등이 확산하고 있는데, 당 내홍이 수습되기 전까지는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 호감도 상승은 어려운 상황으로 보임
- ☑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 및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호감도가 하락한 국면 속 정당 호감도가 상승한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국민적 관심 사안에서 다소 벗어난 가운데, '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논란을 겪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여론은 다음달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향배가 주목됨

□ 다음 달 물가 전망 : '오를 것' 62%, 소폭 하락

- 다음 달 물가 전망에 대해 '지금보다 오를 것' 응답과 '비슷할 것' 응답은 소폭 하락, '지금보다 내릴 것' 응답은 소폭 상승함
 - 4월 조사 결과, '지금보다 오를 것' 62%, '지금과 비슷할 것' 34%, '지금보다 떨어질 것' 4%
- 모든 계층에서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는 응답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3040세대 △PK △은퇴.무직자 △월평균 가구소득 400~600만원 미만층 등에서 높았음
- 한편, '비슷할 것'이라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우세한 계층은 △60대 이상 △TK △주부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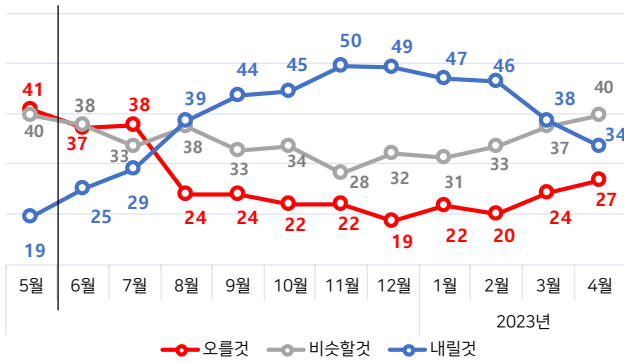
Kstat Point

- ☑ 물가상승을 전망하는 응답의 하락세가 2개월 연속 이어짐
- ☑ 실제로 물가가 낮아지고 있고, 체감물가가 또한 하락함에 따라 '익월 물가'에 대해 긍정적인 전망이 나타난 것으로 보임
 - : 3월 물가상승률은 4.2%를 기록했으며, 이는 작년 3월(4.1%) 이후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음
 - : 물가상승세는 작년 4월 4.8%를 시작으로 7월(6.3%) 정점을 찍은 후 점진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 : 같은 달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 상승률은 4.4%로 전월(5.5%)대비 1.1%p 하락함
- ☑ 다만, 물가상승 전망의 우위세는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됨
 - : 물가의 장기적 추세를 나타내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상승률은 여전히 5%에 가까운 4.8%를 기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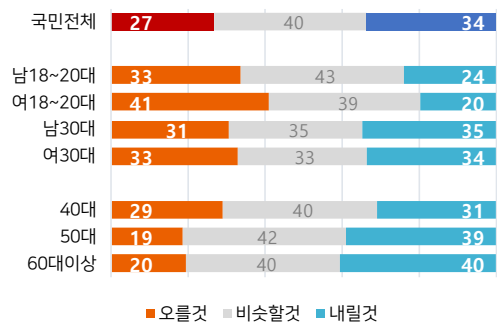
□ 부동산 가격 전망 : '오를 것' 27%, 소폭 상승

- 부동산 가격 전망 관련, 5개월 연속 '지금보다 내릴 것' 응답은 하락세를, '비슷할 것' 응답은 상승세를 보이며, 부동산 가격이 비슷할 것이라는 전망이 하락 전망세를 앞섰음
 - 4월 조사 결과, '지금과 비슷할 것' 40%, '지금보다 내릴 것' 34%, '지금보다 오를 것' 27% 순으로 조사됨
- 계층별 '차이'(오를 것-내릴 것)를 살펴보면, 거의 모든 계층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해 부동산 가격 하락 전망이 높은 가운데, 특히 △50대 △60대 이상 △서울, TK △진보층 △자영업자 등에서 뚜렷했음
- 반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전망한 계층은 △남자 18~20대 △여자 18~20대 △충청 △학생 등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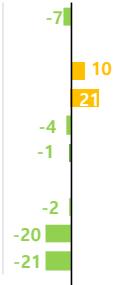
'향후 부동산 가격 전망' 추이 : 국민전체 (자료:케이스탯,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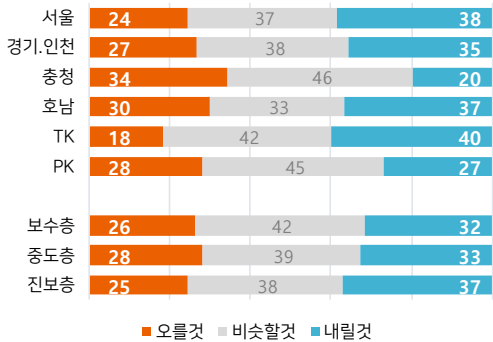
2023년 4월 '향후 부동산 가격 전망' : 국민전체,성/연령별 (단위:%)



상승-하락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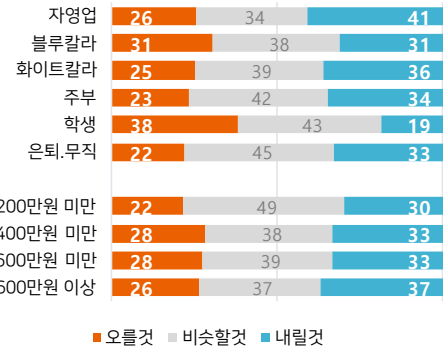
4월 '향후 부동산 가격 전망' : 지역별,이념별 (단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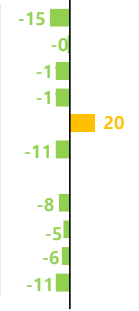
상승-하락 (%p)



4월 '향후 부동산 가격 전망' : 직업별,소득별 (단위:%)



상승-하락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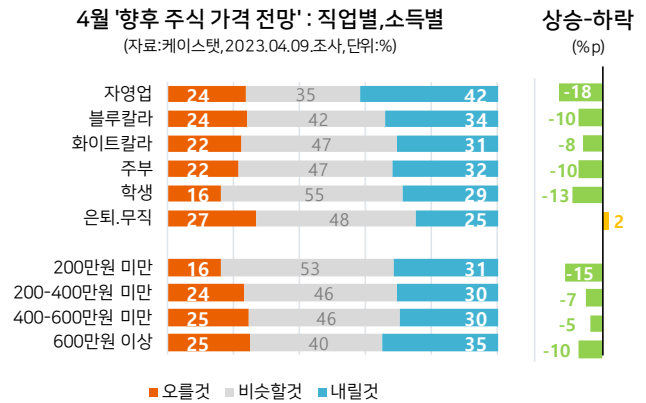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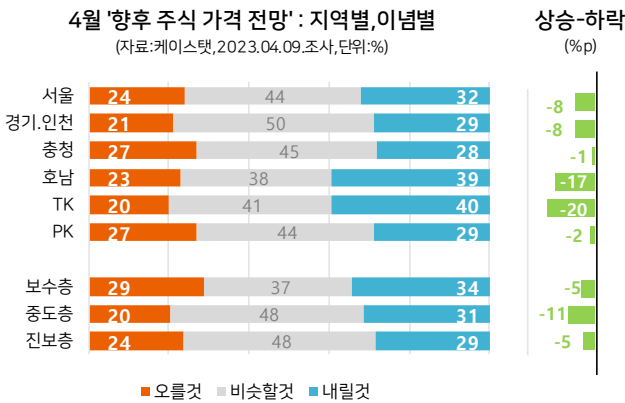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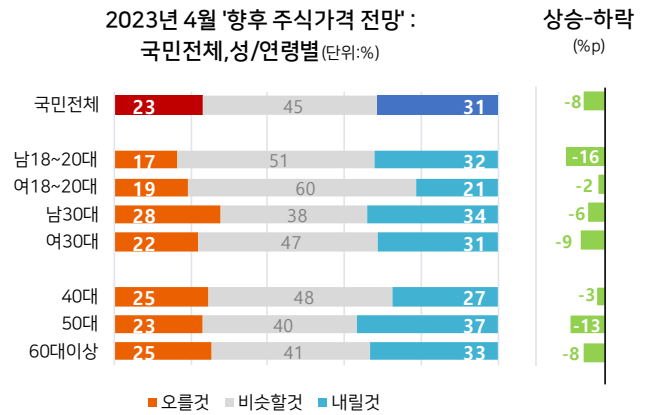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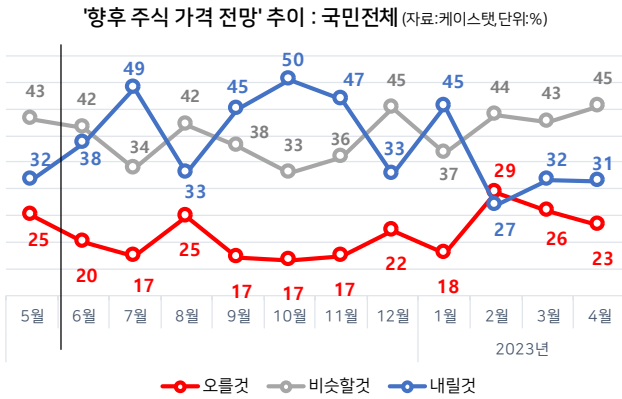


Kstat Point

- ☑ 작년 11월 이후 부동산 가격 '하락 전망' 응답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상승 전망' 응답 비중은 점차 늘어나며, 두 응답의 격차가 작년 12월 30%p에서 이번 달 7%p로 좁혀짐
- ☑ 올해 초 발표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책과 최근 시중은행의 금리 인하 등의 영향이 지속되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낙관론이 다소 높아진 상황으로 보임
 - : 올해 전국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추이를 보면, 1월 91.5→2월 102.1→3월 103.6으로 지속 상승하고 있음
 - : 주택 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가 100을 넘으면 전월에 비해 가격 상승 및 거래 증가 응답자가 많은 것을 의미하는 바, 부동산 매수심리가 다소 살아난 모습임

□ 주식 가격 전망 : '오를 것' 23%, 소폭 하락

- 주식 가격이 '지금보다 내릴 것' 응답과 '지금보다 오를 것' 응답은 소폭 하락하고 '지금과 비슷할 것' 응답은 소폭 상승함
 - 4월 조사 결과, '지금과 비슷할 것' 45%, '지금보다 내릴 것' 31%, '지금보다 오를 것' 23% 순으로 조사됨
- 계층별 '차이'(오를 것-내릴 것)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계층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해 주식 가격 하락 전망이 높으며, 특히 △남자 18~20대 △50대 △호남, TK △자영업자, 은퇴·무직자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층 등에서 두드러짐
- 주가 상승을 상대적으로 높게 전망한 계층은 △남자 30대 △PK △보수층 △은퇴·무직자 등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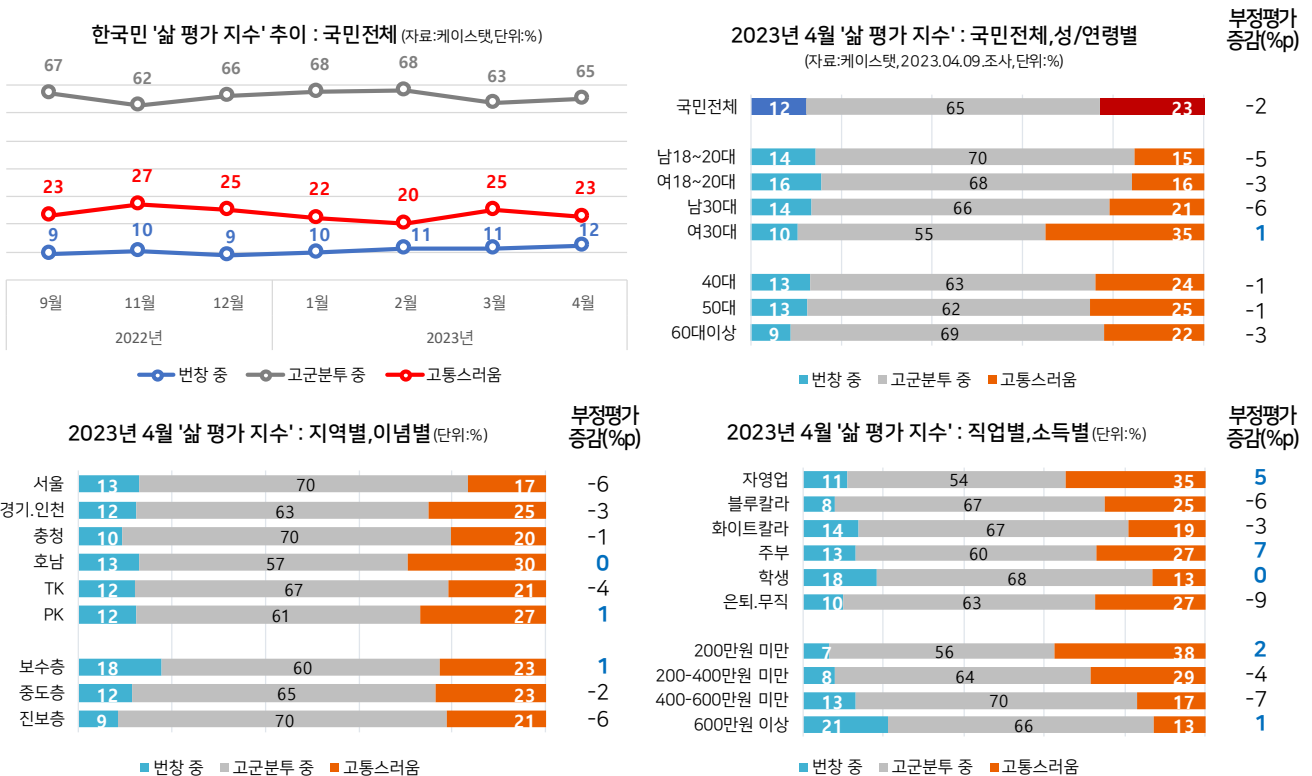


Kstat Point

- ☑ 다음 달 주식 가격에 대한 국민 전망은 이번 달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림
- ☑ 최근 주식시장에 다소 혼풍이 불고 있는데, 다음 달 여론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주목됨
 - : 3월 장중 최고 2400선(2481.24) 최저 2300선(2346.11)을 기록했던 코스피 지수가 이번 조사 시점 이후인 4월 10일 8개월 만에 장중 2500선을 돌파했으며, 14일에는 2570선까지 오름
 - : 다만, 이와 관련하여 증시 전문가들은 코스피가 2차전지 종목의 급등 및 쓸림으로 단기간 과열됐다고 판단하며, 곧 조정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 자신의 삶에 대한 평가 : '고군분투' 65%, '고통' 23%, '번창' 12%

- 국민들의 '삶 평가 지수'를 유형화해 살펴본 결과,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응답이 2%p 증가하고, '고통스럽다' 응답이 같은 폭만큼 감소함
 - 4월 조사 결과, '고군분투하고 있다' 65%, '고통스럽다' 23%, '번창하고 있다' 12% 순으로 나타남
 - ※ 현재와 약 5년 후의 자기 삶의 단계를 '최악' 0점 ~ '최고' 10점 사이에서 평가한 후, 3가지로 유형화함
 - ① 번창하고 있다(Thriving) : 현재 7점 이상, 미래 8점 이상 ② 고군분투하고 있다(Struggling) : 유형 1·3 외 전체 ③ 고통스럽다(Suffering) : 현재·미래 4점 이하
- '삶 평가 지수'의 유형별 비중을 계층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계층에서 '고통스럽다' 유형이 우세하고, 특히 우세한 계층은 △여자 30대 △호남 △자영업자 △월평균 가구소득 400만원 미만층 등임
- '번창하고 있다' 유형이 우세한 계층은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뿐인 가운데, △여자 18~20대 △보수층 △학생 등도 상대적으로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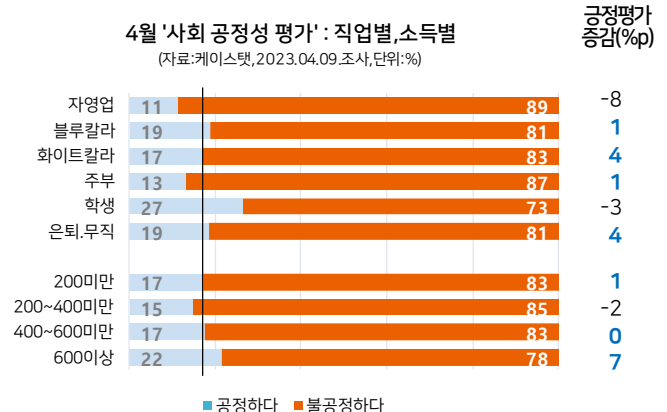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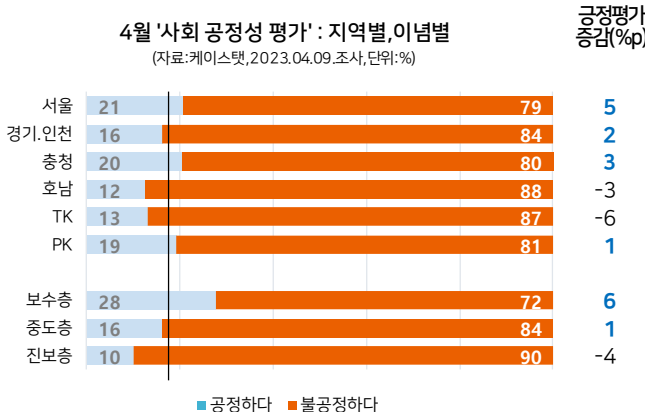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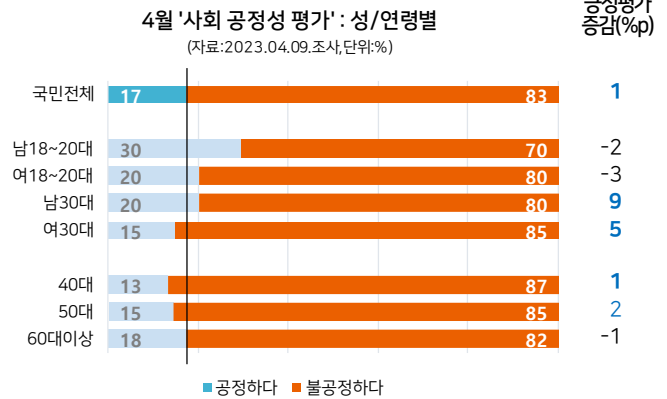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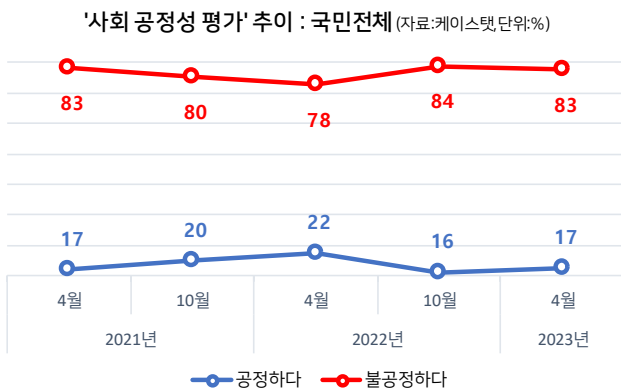
Kstat Point

- ☑ 지난달 큰 폭 상승했던 자기 삶이 '고통스럽다'는 부정적인 응답이 소폭 감소함
 - : 지난 3월 대부분의 계층에서 전월 대비 부정평가가 증가했던 반면, 이달에는 일부 계층(자영업자, 주부 등)을 제외한 거의 모든 계층에서 부정평가가 하락한 결과임
 - : 자기 삶에 대한 평가는 사회적 관계, 일, 건강 상태, 개인적 안전, 주관적 안녕 등 개인을 둘러싼 주변 환경 및 상황 등에 따라 주관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시기별 다소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됨

4월 특별지표 : 우리 사회 공정성 평가

□ 사회 공정성 평가 : 우리 사회, '불공정하다' 83%

- 한국 사회가 '불공정하다'는 의견은 83%로, 작년 10월(84%)과 비슷한 수준을 보임
 - “선생님은 우리나라 사회가 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 불공정하다고 생각하세요?”라는 질문에 대해 ‘공정하다’ 응답 17%, ‘불공정하다’ 응답 83%를 기록함
- 모든 계층에서 ‘불공정하다’는 응답이 절대적으로 우세하며, 특히 높은 계층은 △40대 △호남, TK △진보층 △자영업자, 주부 등임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세로선은 국민 전체 수치를 의미함
- ‘공정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 18~20대 △서울 △보수층 △학생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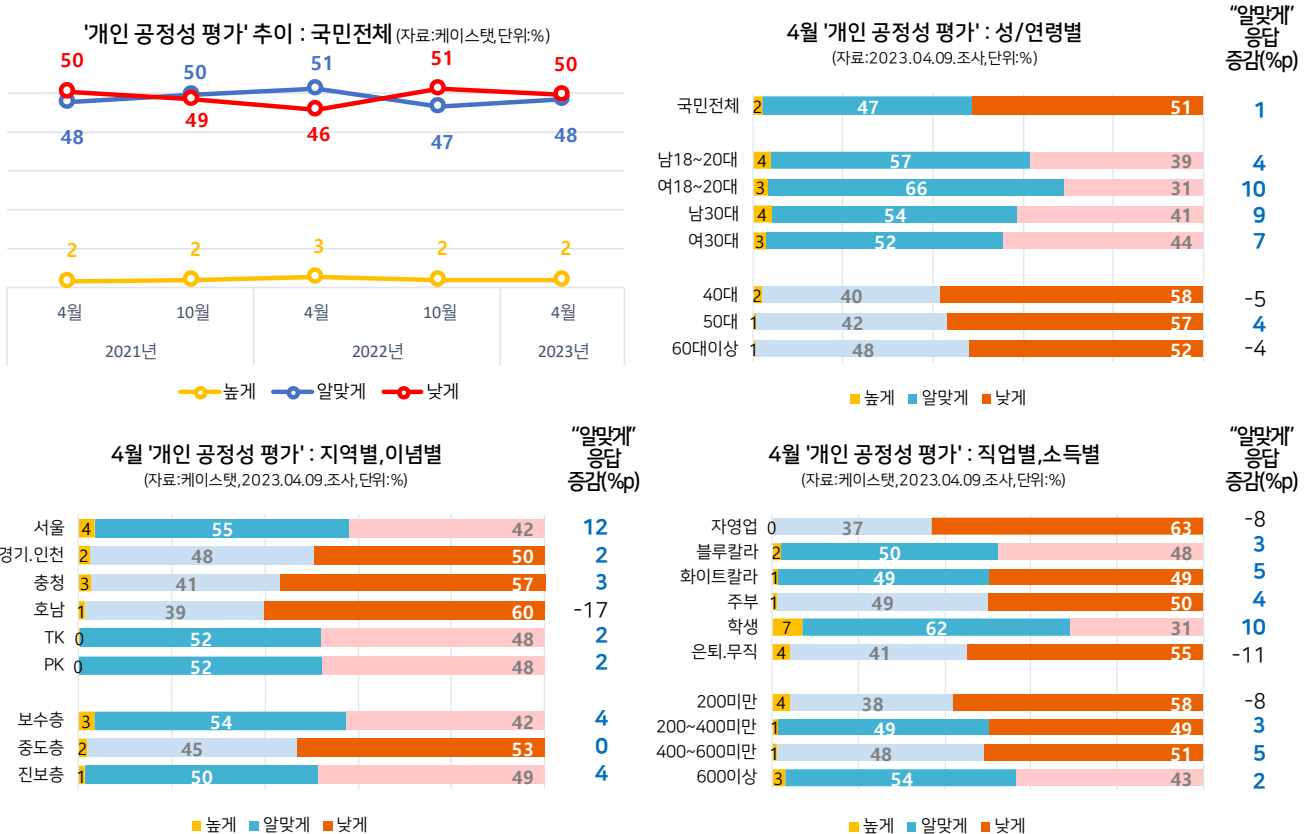


Kstat Point

- ☑ 국민 대부분이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만큼 사회 공정성에 대한 갈증이 매우 높은 상황임
- ☑ 한국 사회에서의 성공 조건은 부모 배경, 연줄 등이며, 개인 노력으로는 계층상승이 어렵다는 응답이 높은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들은 사회 공정성을 갈구하지만 어쩌면 그것은 허상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함께하는 것으로도 보임
 - : 인생 성공 조건으로 '부모 배경'과 '연줄' 등이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은 각 68%, 60%에 달했음 (자료: 한국리서치 '18년 한국사회 공정성 인식조사')
 - : 우리 사회에서 계층상승은 '불가능하다' 응답은 60~70% 수준임 (자료: '20.4.~'23.4.발간 케이스탯 사회지표 리포트)

□ 개인 공정성 평가 : 능력 '알맞게' 48% vs '낮게' 50%

- 국민의 개인 차원에서의 공정성에 관한 생각은 사회 공정성에 대한 평가보다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임
-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대해 '알맞게 평가받고 있다'는 의견은 48%, '낮게 평가받고 있다'는 의견은 50%로 비슷한 결과를 보임
 - 한편,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의견은 2%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질문, "선생님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대해 사회로부터 어떻게 평가받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계층별로 상위 응답이 다른데, '내 능력과 노력에 알맞게 평가받고 있다'는 의견이 특히 우세한 계층은 △남녀 18~20대 △남자 30대 △서울 △보수층 △학생 △월평균 가구소득 600만원 이상 등임
- 이에 비해 '내 능력과 노력에 비해 낮게 평가받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한 계층은 △4050세대 △충청, 호남 △중도층 △자영업자, 은퇴·무직자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층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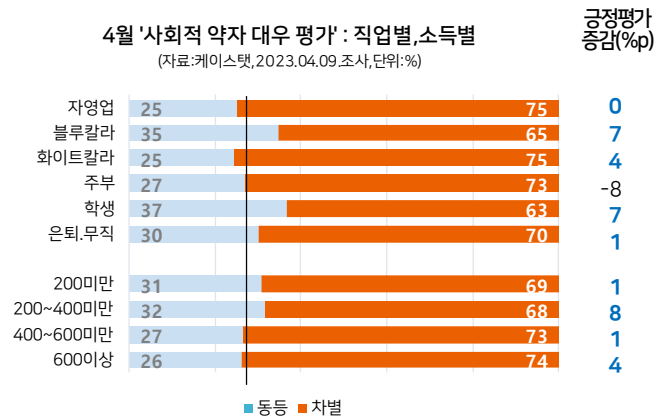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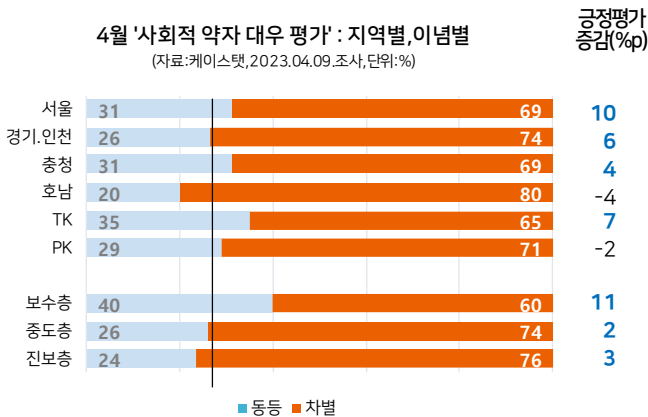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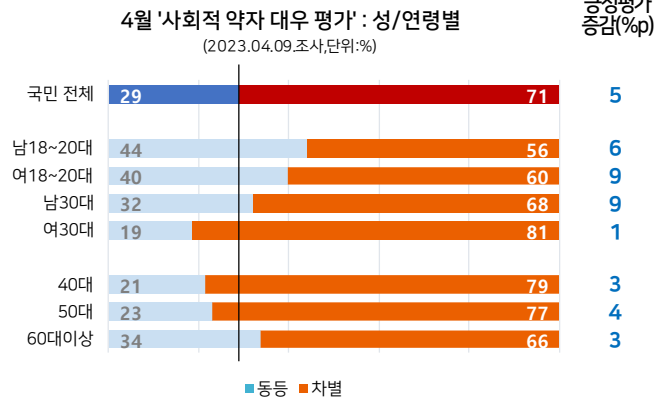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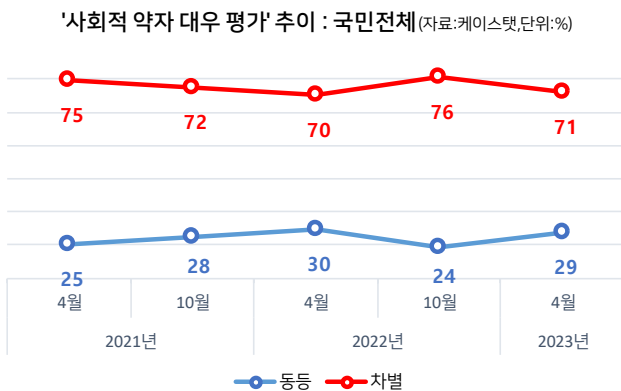


Kstat Point

- ☑ 국민들은 한국 사회는 불공정하지만,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평가는 알맞게 이뤄지고 있는 편으로 생각하고 있음
 - :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불공정하다'는 응답은 재작년 4월 이후 한결같이 80%선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 사회의 개인 능력 및 노력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알맞게 평가받고 있다'는 응답이 50% 내외의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사회적 약자 대우 평가 : '차별한다' 71%

-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대우에 대해 '차별하고 있다'는 응답은 71%,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 응답은 29%로 나타남
 - 작년 10월 대비 '차별' 의견이 5%p 하락, '동등' 의견은 5%p 상승함
 - 질문, "선생님은 우리 사회가 가난한 사람,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차별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 계층별로 살펴보면, 전 계층에서 사회적 약자를 '차별한다'는 의견이 우세한 가운데, 특히 △여자 30대 △4050세대 △호남 △진보층 등에서 우세했음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세로선은 국민 전체 수치를 의미함
-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 18~20대 △여자 18~20대 △60대 이상 △TK △보수층 △블루칼라, 학생 등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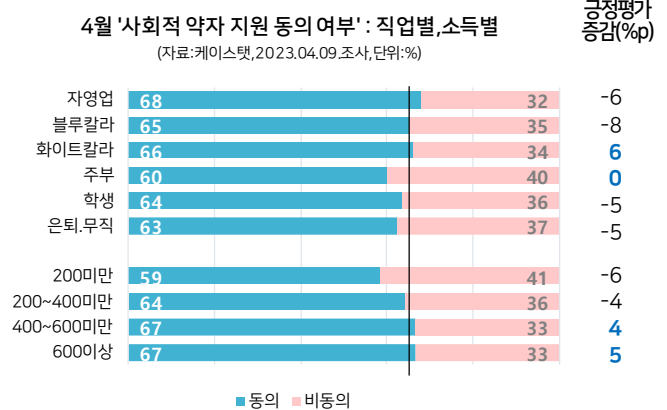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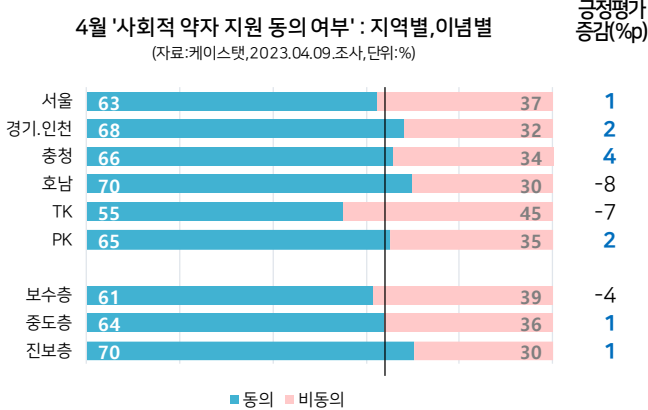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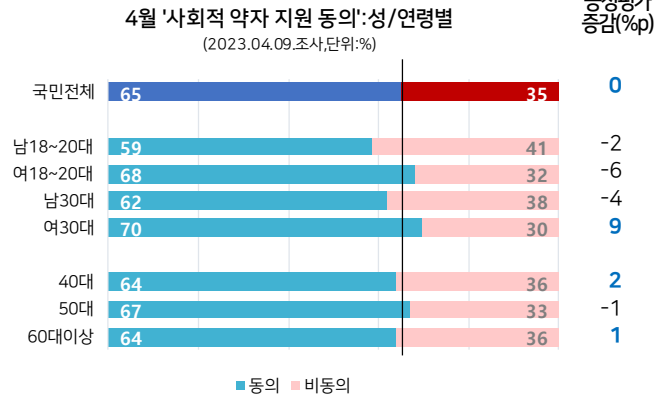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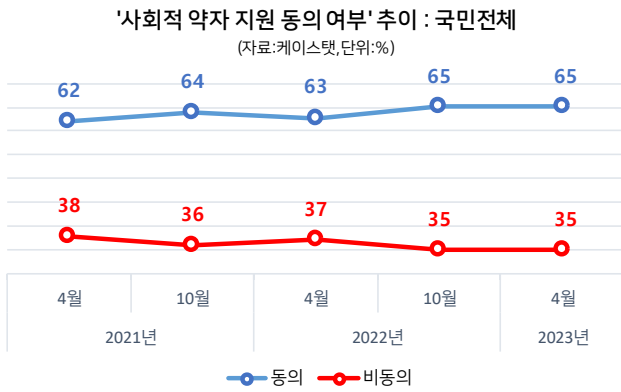


Kstat Point

- ☑ '우리 사회가 사회적 약자를 차별하고 있다'는 응답이 작년 10월 대비 큰 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인 70%대를 기록하고 있음
- ☑ 한편, 남녀 18~20대는 다른 연령대보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동등하게 대우하고 있다'는 응답이 높았는데, 이들은 앞선 '개인 공정성 평가'에서도 '우리 사회가 알맞게 평가하고 있다'는 응답 또한 다른 세대보다 높았음
 - : 남녀 18~20대는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개개인별로 공정하게 평가하고 대우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보임

□ 사회적 약자 지원 : '동의' 65% vs '비동의' 35%

-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사회적 약자 지원을 동의하고 있음
 - “선생님은 사회적 약자가 진학이나 취업을 할 때 가산점을 주는 등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동의한다’는 의견이 65%이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35%임
- 계층별로 살펴보면 모든 계층에서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다’는 의견이 우세함
- ‘동의한다’는 의견이 특히 우세한 계층은 △여자 30대 △호남 △진보층 등이었음
 - 아래 그림에서 검은색 세로선은 국민 전체 수치를 의미함
-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상대적으로 높은 계층은 △남자 18~20대 △TK △보수층 △주부 △월평균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층 등임



Kstat Point

☑ 우리 사회는 '공정'에 대해 '기회의 평등' 관점에서 접근하기도 하고, '결과의 평등' 관점에서 접근하기도 하는데, 사회적 약자에게 진학이나 취업 시 가산점 부여의 혜택을 주는 것은 '기회의 평등' 측면에서 사회 공정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각자 다른 상황의 개인에게 맞는 적절한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 우리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것으로 보임



http://www.kstat.co.kr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4길 76 월드빌딩
admin@kstat.co.kr ■ 전화 _ 02_6188_6000

케이스탯 리포트는 정기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와 빅데이터 버즈(Buzz) 분석을 기반으로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사회, 경제, 생활, 문화 등 우리 삶과 가까운 주제로 구성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케이스탯과 컨설팅 전문가의 기획회의를 통해 선정된 주제와 정기지표를 조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중요한 이슈와 여론의 흐름을 파악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심층적인 분석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사회조사의 공정성과 가치를 더하고자 합니다.

케이스탯 리포트는 매월 2,4주 목요일에 발행합니다(사회지표는 매월 3주 목요일).

케이스탯 리포트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면, 문의 메일 report@kstat.co.kr로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케이스탯 리포트 73호] 발간 안내

케이스탯 리포트 73호는 『친환경 실천의식과 장애요인 분석』이라는 주제로 2023년 4월 27일(목요일)에 발간됩니다.